

상호텍스트성의 번역

— 상호텍스트적 독서 효과의 보존을 중심으로*

선 영 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목 차 •

- I. 들어가는 말
- II. 상호텍스트적 독서
- III. 상호텍스트를 번역하는 방법
- IV. 맺는 말

I. 들어가는 말

이 논문이 의도하는 것은 번역과 관련된 상호텍스트성의 문제를 생각해 보는 데 있다. 한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맺고 있는 상호 관련성이나 상호 의존성으로 정의되는 상호텍스트성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외에서 많은 것이 이야기되었지만¹⁾, 번역의 관점에서 상호텍스트성에 접근한 경우는 여전히 드물다는 점에서, 이러한 접근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²⁾

* 이 논문은 2013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1) 상호텍스트성에 대한 통시적 연구에 대해서는 H.-G. Ruprecht, "Intertextualit", *Texte, Revue de critique et de théorie littéraire*, no 2, 1983, p. 13-22를 참조할 수 있다.
- 2)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호텍스트성 번역에 대한 연구 사례는 아직 많지 않다. 해외 연구로는, Geneviève Roux-Faucard, "Intertextualité et traduction", *Meta*,

이 주제에 대한 국내 연구 중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홍경아의 『상호텍스트성과 번역교육』을 들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상호텍스트성 개념을 “텍스트 내부 구성 요소 간 관련성, 서로 다른 텍스트의 언어 표현상 관련성, 텍스트 유형상 관련성, 텍스트가 속한 문화 관련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353)으로, 결국에는 “번역 과정에 적용되는 언어지식과 배경지식의 총체”로까지 확대되고 만다는 문제점이 있다.

상호텍스트성은 여러 이론가들에 의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그 스펙트럼이 꽤나 넓어서 가장 좁은 의미에서는 한 텍스트 안에 다른 텍스트가 인용문이나 언급의 형태로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 넓은 의미에서는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한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맺고 있는 상호 연관성, 상호 관련성(주네트는 이 경우 ‘통텍스트성 *transtextualit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³⁾)을 의미한다. 때로는 텍스트가 씌어진 문화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상호텍스트성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개념 자체가 희석될 수 있다는 점과, 상호텍스트성과 단순한 문화적 지시 *référence culturelle*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 우리는 상호텍스트성의 개념을 텍스

51-1, 2006, pp. 98-118와 Lawrence Venuti 등의 글을 모은 *Palimpsestes* n° 18, *Traduire l'intertextualité*, Paris, Presses de la Sorbonne Nouvelle, 2006와 Eleonora Frederici, “The translator’s intertextual baggage”, *Forum for Modern Language Studies*, 43:2, 2007, pp. 147-160 등을 언급할 수 있다.

국내에서 진행된 상호텍스트성 번역 연구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박미정, 『시사만화 그림번역의 서사성과 상호텍스트성 - 한일 / 한영번역의 번역 전략 비교분석』, 『통역과 번역』, 2008, pp. 65-91.

박미정, 『드라마의 상호텍스트성과 번역자의 가시성 - 『내 이름은 김삼순』과 『커피 프린스 1호점』 소설 한일번역을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2012, pp. 63-83.

홍경아, 『상호텍스트성과 번역교육』, 『중국언어연구』, 2010, pp. 337-356.

최승주, 『병어리 삼룡이 불역판에서 나타난 상호텍스트성 유지 전략 분석』, 『국제 회의 통역과 번역』, 8(2), 2006, pp. 163-178.

3) Gérard Genette, *Palimpsestes*, Paris, Seuil, 1982 참조.

트와 텍스트 사이의 관련이 실질적으로 현존하는 경우로 한정하고자 한다. 더불어 한 가지 미리 밝혀둘 것은, 모든 (문학) 텍스트의 근원적 속성이자 중요한 글쓰기 전략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는 상호텍스트성은 텍스트 생산과 수용 양 측면에 공히 작용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것은 주로 수용의 측면이라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의 주된 관심은 선행 텍스트와 후행 텍스트간의 영향 관계라든지 후행 텍스트에 의한 선행 텍스트의 흡수와 변용에 있지 않고, 작품 해석의 문제, 독서의 문제, 텍스트-독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구성되는 “독서의 효과 un effet de lecture”⁴⁾로서의 상호텍스트성에 쏠려 있다.

II. 상호텍스트적 독서

상호텍스트성은 선행 텍스트와 후속 텍스트 간의 ‘대화성’을 전제로 한다. 독자가 자신이 읽고 있는 ‘지금 여기’의 텍스트를 그 텍스트가 유래한 ‘그때 거기’의 텍스트 조각과 연결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상호텍스트성의 퍼즐이 완성된다. 이것은 곧 실질적으로 상호텍스트성의 발현에서, 텍스트와 텍스트를 관련짓는 독자의 역할, 독자의 상호텍스트적 능력이 결정적 요소임을 의미한다.⁵⁾ 상호텍스트성의 이러한 특징은 “어떤 텍스트도 독자가 다른 텍스트들에서 얻

4) “l’inter textualité est la perception, par le lecteur, derapports entre une œuvre et d’autres, qui l’ont précédée ou suivie.” (M.Riffaterre, “La trace de l’intertexte”, *La Pensée*, vol. 215, oct. 1980, p. 4).

5) “La manière dont l’inter textualité sollicite la mémoire et le savoir du lecteur, le rôle décisif qu’elle lui assigne sont essentiels [...] le propre de l’intertexte est d’engager le protocole de lecture particulier, qui requiert du lecteur une participation active à l’élaboration du sens.” (Nathalie Piégay-Gros, *Introduction à l’inter textualité*, Paris, Dunod, 1996, pp. 3-4).

은 경험과 무관하게 읽히지 않는다”⁶⁾는 에코의 진술 속에 간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상호텍스트성의 첫 번째 특징이다.

상호텍스트성의 두 번째 특성은 그것이 특수한 독서법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상호텍스트는 어떤 텍스트와 그 텍스트가 상기시키는 다른 텍스트들을 동시에 읽어내는 이중적 읽기를 요구한다.⁷⁾

상호텍스트성의 본질은 텍스트의 선조성을 해체시키는 새로운 독서 방식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상호텍스트적 참조는 그 하나하나가 모두 양자택일의 장소이다. 어느 구절과 다름없는 평범한 독서를 계속해나갈 것인지 아니면 원천-텍스트로 되돌아갈 것인지 [...] 상호텍스트적 독서 과정에서 이 두 가지 방식은 동시에 작동하며, 서서히 의미적 공간을 열어가는 양 갈래 길들로 종종히 텍스트를 장식한다.

Le propre de l'intertextualité est d'introduire à un nouveau mode de lecture qui fait éclater la linéarité du texte. Chaque référence intertextuelle est le lieu d'une alternative : ou bien poursuivre la lecture en ne voyant là qu'un fragment comme un autre [...] – ou bien retourner vers le texte-origine [...] C'est simultanément qu'opèrent ces deux processus dans la lecture [...] intertextuelle, étoilant le texte de bifurcations qui en ouvrent peu à peu l'espace sémantique.⁸⁾

6) 에코, 『소설 속의 독자』, 김운찬 옮김, 열린책들, 1996, p. 125.

7) 물론, 상호텍스트의 참조들을 포착하지 못한 채 ‘순진한’ 방식으로 텍스트를 즐길 수도 있다. ‘순진한’ 독자가 그저 주요 줄거리만 파악하고 간다고 해도, 텍스트는 불평하지 않는다. 그러나 결국에는 “가장 순진한 독자도 때로 텍스트가 외부의 다른 것을 참조하고 있다는 의혹을 느끼지 않으면서 텍스트의 그물들을 거쳐 갈 수는” 없다는 것이 에코의 입장이다(『상호텍스트적 아이러니와 읽기의 층위들』, 『움베르토 에코의 문학 강의』, 김운찬 옮김, 열린책들, 2005, p. 323).

리파테르(앞의 글, p. 4)는 전적으로 독자의 교양의 깊이에 좌우되는 “불확실한 상호텍스트성 *intertextualité aléatoire*”과, 상호텍스트성과 연결시켜 보지 않으면 ‘비문법성 *agrammaticalités*’을 띄게 되는 “필수적인 상호텍스트성 *intertextualité obligatoire*”를 구분하지만, 둘의 경계는 사실 흐릿하다.

8) Lorent Jenny, “La stratégie de la forme”, *Poétique*, vol. 27, 1976, p. 266.

상호텍스트성이 번역에서 특별한 ‘고민거리’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짐작하다시피, 번역이라는 낯선 시련의 과정, 즉 텍스트가 자신이 속한 문학 전통으로부터 단절되어 낯선 시공간으로 이식되는 탈맥락화의 과정은, 많은 경우, 상호텍스트성의 단절을 불러오게 된다.⁹⁾ 텍스트가 상정하는 독자 - 내포/원형/모델 독자¹⁰⁾ - 와 실제적 독자 사이에 두터운 간극이 생기면서 상호텍스트적 게임의 조건을 뒤흔들어놓기 때문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상호텍스트성이 텍스트 내부적 특성으로만 규정될 수 없는, 오히려 독자의 머릿속에 축적된 다양한 지식들에 근거해서 구성되는 독자 의존적 능력¹¹⁾이라면, 상호텍스트성의 번역이 문화 간 이동에 유난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9) 상호텍스트성의 탈맥락화는 번역이 가져오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치명적인 결과의 하나이다.

“Quand on traduit un texte, on ne traduit pas en même temps sa ‘bibliothèque’; une fois traduit, le texte peut donc se retrouver très loin d’elle : décontextualisé.” (Roux-Faucard, 2006, p. 106).

10) W. 이지의 “내포독자 lecteur implicite” (*L’acte de lecture, Théorie de l’effet esthétique*, Bruxelles, Mardage, 1976, pp. 60-76), 리파테르의 “원형독자 architecteur” (*Essais de stylistique structurale*, Paris, Flammarion, 1971, pp. 46-47), 예코의 “모델독자 lecteur modèle” (*Lector in fabula*, Paris, Grasset, 1985, p. 80)는 모두 현실 속의 경험적 독자와는 구별되는, 텍스트의 전략으로서의 추상적 독자이자 이상적 해석자로 상정되는 가상의 독자이다.

11) 하티프와 마손은 상호텍스트성을 ‘함축 connotation’에 결부시킴으로써 상호텍스트성이 독자가 지닌 사회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The intertextual process of citation, then, is not simply a question of association of ideas, something that is subjective and arbitrary. On the contrary, it is a signifying system which operates by connotation. It requires a social knowledge for it to be effective as a vehicle of signification. Each intrusion of a citation in the text is the culmination of a process in which a sign travels from one text (source) to another (destination). The area being traversed from text to text is what we shall call the intertextual space.” (Basil Hatim & Ian Mason, *Discourse and the translator*, London & New York, Longman, 1990, p. 129).

앨런 파스코의 다음 글은 상호텍스트성의 한 형태인 암시에 관련된 것이지만, 상호텍스트성 전반에 대해서도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암시는 사실상 무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 유일한 한계는 무지에서 비롯된다. 독자가 책을 읽지 않은 경우, 독자의 교양이 별 불일 없는 경우, 독자와 저자가 동일한 전통을 공유하지 않은 경우, 텍스트 여기저기에 암시의 씨앗이 뿌려져 있다 한들 그것은 꽃을 피우지도 열매를 맺지도 못할 것이다.”

Allusion has then virtually limitless potential. [...] The only limitation comes from ignorance. When readers have not read, when their background is limited to pap, when readers and writers share no common tradition, then allusions may have been seeded in a text, but they will produce neither plant nor fruit.¹²⁾

상호텍스트성의 번역에서 독자의 독서 체험, 문화적 기억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인 이유이다. 수용 맥락이 바뀌면서, 독자의 ‘레퍼토리’, 그가 읽은 독서의 목록 또한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호텍스트성이 텍스트 자체의 기제가 아니라, 독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불확실한 것임을 인정할 경우, 독서의 객관성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느냐는 당연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저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상호텍스트적 단서가 독자에 의해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듯이, 반대로 저자가 의식하지 못했던 곳에서, 독자가 상호텍스트성에 대한 암시를 발견 혹은 발명해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¹³⁾

12) Allan H. Pasco, *Allusion, A Literary Graft*,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1994, p. 183.

13) 린다 허친은 한 논문에서 『푸코의 진자』 미국본의 한 구절인 “The Rule is simple : Suspect, only suspect.” (*Foucault's Pendulum*, Translated by William Weaver, p. 314) (규칙은 간단해. 의심하라, 그저 의심하라)에서 영국 작가 E.M.

그러므로 상호텍스트의 감지와 식별, 해석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참조를 명시하는 일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흔히 그 일관성과 필연성을 입증하는 해석에 의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상호텍스트성 독서가 갖는 풍요로움이자 그 한계이기도 하다. 비록 상호텍스트성이 단순한 원천 비평과는 뚜렷이 구분된다고는 하지만, 때로 주관적 독서의 인상, 일종의 기억의 오류에 불과한 상호텍스트의 객관성을 입증하려 드는 과잉 해석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Aussi le repérage, l'identification et interprétation de l'intertexte sont-ils étroitement liés. La mise en évidence de la référence ne devient souvent probante que lorsqu'elle a été étayée par une interprétation qui en démontre la cohérence et la nécessité. C'est la richesse, mais aussi la limite de toute lecture de l'intertextualité : si elle se démarque fortement de la simple critique des sources, elle est menacée par la surinterprétation qui vise à prouver l'objectivité d'un intertexte qui n'est parfois qu'une impression subjective de lecture, une sorte de lapsus de la mémoire.¹⁴⁾

어떻게 보면 상호텍스트성은 “저자의 죽음” 이후, 텍스트 의미의 주된 구성자로서의 특권적 위치를 차지한 독자가 맞닥뜨리게 된 “해석학적 도전 défi herméneutique”¹⁵⁾이라는 생각이 가능해지는 이유이다. 상호텍스트성 독서의 문제가 해석의 문제로 가 닿을 수밖에 없듯이, 상호텍스트성의 번역이라는 문제 역시 원본의 독자이자 번역본 저자로서의 번역자의 해석의 문제와 불가피하게 얽혀 있다. 그리고 이 해석의 ‘주관성’ 혹은 ‘자의성’의 문제가 상호텍스트성 번

포스터의 『하위즈 앤드 *Howards End*』(1910)에 등장하는 유명한 경구 “Connect, only connect” (연결하라, 그저 연결하라)와의 상호텍스트성을 지적한 적이 있다 (Linda Hutcheon, “Eco’s echoes: ironizing the (Post) Modern”, *Diacritics* vol. 22, 1992, p. 4). 그러나 문제의 그 상호텍스트성은 원저자 에코가 아닌 번역자 윌리엄 위버의 작품이다. 에코가 쓴 원래의 문장은 “sospettare, sospettare sempre” (의심하라, 언제나 의심하라)이다.

14) Nathalie Piégay-Gros, *Introduction à l'intertextualité*, 1996, pp. 99-100.

15) Sophie Rabau, *L'Intertextualité*, Flammarion, GF-Corpus, 2002, p. 35.

역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Ⅲ. 상호텍스트를 번역하는 방법

상호텍스트성을 유지하기 위해 번역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은 ‘충실한 직역’이다. 그러나 앞서도 이야기되었듯이, 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텍스트의 탈맥락화, 그리고 텍스트의 내포 독자와 실제적 독자의 불일치로 인해, 직역의 방법을 통해서도 상호텍스트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탈맥락화의 과정으로 말미암아, 상호텍스트적 관계는 특히 그저 이 관계를 설정하는 어휘나 표현들을 외국 텍스트로 최대한 가깝게 옮기는 번역을 통해 재현될 수는 없을 것이다. 제아무리 원문에 가깝다 한들 그러한 번역은 의미적 대응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떤 외국 텍스트의 독특한 문화적 의미작용, 그 외국 텍스트가 외국의 문화 전통과 맺는 관계를 인식할 때 생겨나는 의미작용을 끌어들이 수는 없을 것이다.

En raison du processus de décontextualisation, les relations intertextuelles en particulier ne sauraient être simplement reproduites par la traduction la plus proche des mots et expressions qui instituent cette relation dans le texte étranger. Une telle traduction, aussi proche soit-elle, peut éventuellement établir une correspondance sémantique, mais ne pourra incorporer la signification culturelle particulière d'un intertexte étranger, signification qui provient de la connaissance d'un lien entre le texte étranger et une tradition culturelle étrangère.¹⁶⁾

이 같은 상호텍스트성의 소실을 벌충하기 위해, 번역자는 파라텍

16) Venuti, "Traduction, intertextualité, interprétation", pp. 19-20.

스트적 장치를 동원할 수 있다. 본문이 아닌 별도의 공간을 통해 상호텍스트의 출처와 맥락을 설명함으로써 끊어진 연결고리를 다시 이어주는 방법이다. 역주는 그중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식이다.

상대적으로 빈약할 수밖에 없는 번역본 독자의 지평을 보완해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 방식의 경우에도 독서의 효과는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가령 암시의 경우, 텍스트가 일부러 감추어두었거나 혹은 전략적으로 반쯤만 드러내 놓은 요소를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방식으로 진술함으로써 텍스트가 의도한 재미를 감소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된 로랑 제니의 지적처럼, 상호텍스트적 독서의 특징이 두 가지 층위의 독서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한다면, 역주를 통한 직접적 설명은 이 ‘양 갈래의 길’을 현학적이고 밋밋한 ‘우회로’로, ‘독서의 즐거움’을 ‘학문의 즐거움’으로 변질시키고 만다.

원어에서 상호텍스트성을 함유하는 구절은, 그 대목에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지식을 작동시키는 까닭에, 표현상으로는 하나에 해당하지만, 두 가지 독서의 과정이 가능하도록 만든다. 반면, 번역은 한 가지 독서는 텍스트에,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독서는 파라텍스트에 할당함으로써, 이 두 가지 독서를 분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양 갈래의 길”이 우회로가 되고, “동시성”이 상실되며, “총총히 수놓아진” 텍스트는 박학본이 되고 만다.

Alors que, dans la langue originale, le fragment porteur d'intertextualité ouvre deux processus possibles de lecture, mais correspondant à une seule formulation, parce qu'il exploite à cet endroit précis une connaissance qu'il est inutile d'explicitier, la traduction amène souvent à séparer ces deux lectures, affectant l'une au texte et l'autre au paratexte : la “bifurcation” devient détour, le “simultanément” se perd, et le texte “étoilé” devient édition savante.¹⁷⁾

17) Roux-Faucard, “Intertextualité et traduction”, p. 107.

역주의 사용에 대한 베누티의 의견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 이야기된 두 가지 번역 방식에서 상호텍스트성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한다면, 남아 있는 다른 방법은 출발 텍스트의 상호텍스트성을 도착 언어에서 ‘재창조’하는 방법이다. 이와 관련하여 움베르토 에코는 몇 가지 흥미로운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독서라는 상호 작용 속에서 독자의 능동적 역할, 독자의 협력¹⁸⁾을 강조한 에코는 저자-독자 관계의 중심에 상호텍스트성을 위치시키며, 상호텍스트성의 온전한 발현을 위해 번역에서 필요한 것은 정확한 ‘문헌’이 아닌 ‘문학적 환기’의 보존임을 강조한다. 한국어로도 번역된 『푸코의 진자 *Il pendolo di Foucault*』¹⁹⁾와 관련된 한 예²⁰⁾를 통해 에코가 제안하는 번역의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푸코의 진자』는, 에코의 모든 텍스트들이 그러하듯, 비교(秘敎) 문학 사전을 방불케 하는 무한정의 상호텍스트들이 끊임없이 등장

“Afin de compenser la perte de l’intertextualité, le traducteur peut s’appuyer sur des procédés paratextuels, comme une présentation ou des annotations, ce qui peut s’avérer utile pour restituer le contexte culturel étranger et expliquer la signification culturelle d’une relation intertextuelle et son fondement linguistique. Toutefois, en faisant ces ajouts, le travail du traducteur cesse d’être de la traduction et devient commentaire. Qui plus est, non seulement la traduction revêt un caractère savant, pouvant restreindre son lectorat, mais elle échoue à produire sur le lecteur l’effet immédiat que le texte étranger produit sur le lecteur étranger. Une réponse équivalente est à nouveau empêchée.” (Venuti, “Traduction, intertextualité, interprétation”, p. 19-20.)

- 18) 에코에 따르면 텍스트는 다른 모든 메시지 이상으로 독자의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협력을 요구하는데, 독자에 의한 협력이란 “텍스트가 말하지 않은(그러나 가정하고 약속하고 암시하고 내포하는) 것을 이끌어 내고, 빈 공간을 채우고, 텍스트 안에 있는 것을, 그 텍스트가 유래하고 또 함류하는 상호텍스트성의 조직과 연결시키는” 작업이다. (에코, 『소설 속의 독자』, p.125.)
- 19) *Il pendolo di Foucault*, Milano, Bompiani, 1988.
- 20) 이 레오파르디의 예는 기존의 논문(SEON Yeong A, *La traduction du stéréotype dans le texte littéraire*, 2006)에서 다루어진 적이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상호텍스트성의 번역과 관련하여 이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하는 소설이다. 아무 때나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문학적 인용들은, 저자 본인의 말에 따르면, “그 등장인물들이 인용의 개입 없이는 세상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이다. 책의 제57장에 나오는 한 예이다.

[...]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수록 지평선은 더욱 넓어졌다. 비록 모퉁이를 돌 때마다 작은 마을이 들어선 언덕 꼭대기들이 더 많아졌지만. 하지만 꼭대기와 꼭대기 사이로 지평선들은 무한하게 펼쳐졌다. 디오타레비가 말했듯이, 산울타리 너머로 [...]21)

[...] ora invece, man mano che procedevamo, l'orizzonte si faceva più vasto, benché a ogni curva aumentassero i picchi, [...] Ma tra piccolo e piccolo si aprivano orizzonti interminati - al di là della siepe, come osservava Diotallevi [...]22).

에코의 설명에 따르면, 웬만한 문화적 소양을 지닌 이탈리아 독자라면 누구든 “al di là della siepe 산울타리 너머로”에서 이탈리아 낭만주의 시인 레오파르디의 『무한 L'Infinito』를 떠올릴 수 있다. 인용된 텍스트의 출처는 물론이고 인용 부호마저 생략된 이유에는 그러한 상호텍스트적 자명함에 대한 작가의 믿음, 혹은 이탈리아 평균 독자의 상호텍스트적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고 짐작된다.

그런데 만약 “al di là della siepe 산울타리 너머로”를 원문에 밀착하여 옮길 경우, 텍스트의 ‘무언가 *quelque chose*’가 훼손되거나 소실될 가능성이 있다. 그 ‘무언가’는 문제의 그 구절이 독자의 머릿속에서 다른 텍스트와 연결될 수 있는 상호텍스트적 독서의 가능성이다. 상호텍스트의 메아리가 사라진 레오파르디의 텍스트는 새로운 독자들에게는 그저 종이 위의 텍스트로 남을 뿐이다. 설령 번역자가 역주를 통해 상호텍스트성을 설명한다 해도, 앞에서 보았듯이, 번역

21) 『번역한다는 것』, 김운찬 옮김, p. 224에서 재인용. 밑줄은 인용자의 것.

22) *Il pendolo di Foucault*, p. 265.

본의 독자는 인용된 텍스트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 이외에 별다른 감흥이나 공감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코의 번역자들이 내놓은 해결책은 참으로 다양하다. 프랑스어본에서는 ‘울타리’ 대신에 ‘못(池塘) étang’과 ‘골짜기 vallée’가 선택되었다²³⁾. 레오파르디의 『무한』이 아닌, 보들레르의 『상승』에서 빌려온 요소이다. 에스파냐어 번역본에는 17세기 바로크 시인 루이스 데 공고라 Luis de Góngora (1561-1627)의 『고독 Soledades』의 한 구절(“숭고하고 광활한 평원 el sublime espacioso llano”)²⁴⁾이 들어가 있다. 하나같이 국부적인 어구에 매이거나 혹은 출발텍스트를 ‘수동적으로’ 반복하지 않고, 자국 문학을 이용하여 새로운 상호텍스트적 관계를 구축한 ‘대담한’ 예들이다.

이쯤에서 한국어본이 궁금해진다. 한국어본은 1990년에 이윤기에 의해 초역(初譯)된 후 1995년 개역되었다.²⁵⁾ 이 개역판은, 역자의 말을 따르면, 번역자 이윤기의 ‘양심을 괴롭히던’, 번역의 ‘수많은 성수대교’ 가운데 하나인 초역을 뒤엎고, ‘처음부터 끝까지 각주를

23) “[...] l’horizon devenait plus large, bien qu’à chaque tournant augmentassent les pics, où se retranchait quelque village. Mais entre un pic et l’autre s’ouvraient des horizons infinis - au-dessus des étangs, au-dessus des vallées, comme observait Diotallevi [...]” (*Le Pendule de Foucault*, traduction de Jean-Noël Schifano, Paris, Grasset, 1990, pp. 342-343) (모퉁이를 돌 때마다 마을이 들이선 산봉우리들이 늘어갔지만, 지평선은 넓어져 갔다. 산봉우리 사이사이로 끝없는 지평선들이 펼쳐지고 있었다. 디오텔레비가 논평했듯이, 언뜻들 너머로, 골짜기들 너머로...)

24) “Pero entre pico y pico se abrían horizontes ilimitados: el sublime espacioso llano, como observaba Diotallevi...” (*El péndulo de Foucault*, Traducido por Ricardo Pochtar & Helena Lozano, 1988) (하지만 산봉우리 사이사이로 끝없는 지평선이 펼쳐지고 있었다. 디오텔레비가 논평했듯이, 숭고하고 광활한 평원의...)

25) 1990년 『푸코의 추』(상, 하)라는 제목으로, 1995년 『푸코의 진자』(1,2,3)라는 제목으로 열린책들에서 출간.

달아가며 깡그리 다시 번역한 책²⁶⁾이다. 초판의 오류를 바로 잡고 400여 개의 각주를 새로 달아 내놓은 이 전면개정판은 번역자적 ‘양심’의 귀감으로 삼을 만한, 한국의 출판계에서는 매우 예외적인 사례임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문제의 대목은 초역과 개역판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봉우리 위로는 간간이 마을도 나타나고는 했다. 끝없는 원경(遠境)이었다. ‘다리엔 지협(地峽)이 따로 없군’. 단애와 단애 사이로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디오타레비가 혼평했다.²⁷⁾

우리에게는 생소하기만 한 이 ‘다리엔 지협’의 미스터리를 풀자면, 이윤기가 참조한 영어본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 다리엔 지협은, 영어 번역자 윌리엄 위버가 자국 독자를 위해 낭만주의 시인 존 키츠의 『채프만의 호머를 처음 읽고서 On first looking into Chapman’s Homer』(1816)의 마지막 행 “Silent, upon a peak in Darien”에서 빌려온 것이다.²⁸⁾

“We glimpsed endless vistas. Like Darien,” Diotallevi remarked...”.
 (“우리는 언뜻 끝없는 전망을 보았다. 디오타레비가 논평하듯, 다리엔 처럼.....”)

26) 옮긴이의 말, p. 1141.

27) 『푸코의 진자2』, 1995, p. 600.

28) 키츠는 호머의 시를 처음 읽은 경이감을 스페인의 정복자 코르테스가 파나마 해협의 다리엔을 발견했던 그 감격에 비유하였다.

“Then felt I like some watcher of the skies / When a new planet swims into his ken; / Or like stout Cortez when with eagle eyes / He star’d at the Pacific and all his men / Look’d at each other with a wild surmise - / Silent, upon a peak in Darien.” (그때 나는 느꼈다오. / 새 유성이 시계를 헤엄쳐 들어왔을 때, / 하늘의 감시자처럼 혹은 독수리의 눈을 가진 용감한 코르테스처럼, / 모든 부하들이 터무니없는 추측으로 / 서로를 쳐다볼 때, 그는 태평양을 응시했다. / 다리엔 산봉우리 위에서 말없이) (『키츠의 아름다운 세상』, 김진규 옮김, 경남대학교 출판부, 2000)

전 세계적으로 번역되는 작가이자 번역자로서의 경험도 지닌 에코의 경우는 우리에게 아주 호적한 사례이다. 그러나 생존한 저자의 적극적 지원²⁹⁾을 기대할 수 있는 번역의 사례는 안타깝지만 흔치 않다. 아직까지도 원문 중심주의와 저자의 절대적 우위가 전제되는 문학 번역의 풍토에서, 저자의 ‘허락’ 없이 ‘신성한’ 원문의 일부를 바꾼다는 것은, 이를 없는 번역자에게는 무모에 가까운 일이다. 원문을 ‘조작’하는 번역자에게 어떠한 비난이 쏟아지는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충실한 번역’을 원칙으로 내세우는 입장에서 보자면, 앞에서 인용된 예들은 어디까지나 기능주의적, 실용적 번역관에 입각한 하나의 타협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번역자에 의해 구축된 새로운 참조 텍스트를 통해 번역본 독자 역시 상호텍스트적 독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텍스트의 ‘문학성’이 보존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문제의 쟁점은 상호텍스트성의 번역에서 어떤 측면을 보존하고 어떤 측면을 버려야 할지를 결정하는 일일 것이다. 그 결정의 순간에 에코는 우선 ‘심층’ 파블라와 ‘표면’ 파블라³⁰⁾를 구별할 것을 강조한다.³¹⁾

29) 에코는 자칫 놓칠 가능성이 있는 상호텍스트성을 자신의 번역자들에게 암시하고, 번역자들로 하여금 자국의 문학에서 ‘동가의 참조 renvoi équivalent’를 찾도록 권유하기도 한다.

“나는 여러 번역자들에게 지적해 주었다. 산울타리는 중요하지 않으며 레오파르디에 대한 암시도 중요하지 않지만, 어떻게든 문학적 환기가 있어야 한다고.” (에코, 『번역한다는 것』, p. 224)

30) “파블라 la *fabula*”와 “플렛(le *sujet*)”의 구별에 대해서는 *Lector in fabula*, pp. 130-131을 참조할 수 있다.

31) 비슷한 맥락에서, 하림과 마손은 상호텍스트성의 번역에서 중요한 것은 문면(文面)이 아니라 “의도성” 혹은 동기의 보존임을 강조한다.

“The essential point of an intertextual reference is to analyse it in terms of the contribution it makes to its host text. [...] Consequently, no intertextual reference can be transferred into another language on the strength of its informational purport alone. In fact, intentionality normally outranks in-

하지만 내 소설의 그 페이지에서 이야기되는 진짜 파블라는 무엇일까? 디오타레비가 올타리를 보았다는 사실인가, 아니면 그가 문학병에 걸려서 문학을 거치지 않고는 자연을 감상할 줄 모른다는 사실인가? [...]

번역자는 번역에서 전달해야 하는 내용의 층위(또는 층위들)가 무엇인지, 말하자면 ‘심층’ 파블라를 전달하기 위해 ‘표면’ 파블라를 바꿀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³²⁾

그러나 심층 이야기의 보존을 위해 표면 이야기를 희생시킬 수 있고, 거시 명제의 의미를 위해 미시 명제의 의미, 혹은 개별 문장의 의미(그리고 지시)를 바꿀 수 있다는 대원칙에는 동의하더라도, 모든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그 중간에 있는 여러 층의 명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원칙을 내세울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에코의 답은 간단하다.

그 규칙은 없으며 해결책은 경우에 따라 협상해야 한다.³³⁾

에코의 이야기처럼 각 텍스트마다 허용하는 답이 상이하다면, 번역자의 할 일은 ‘해석적 내기’를 통해 작품의 의미를 추정하고, 자신의 독자를 위해 가장 합당한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될 것이다. 이때 번역자에 의해 새롭게 구축된 상호텍스트성은 결국 번역자 개인의 독서의 산물인 만큼, 그 해석의 지나침과 모자람의 함정을 피해가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과정에서 번역자는 독자의

formation content [...]. (Hatim & Mason, *Discourse and the translator*, p. 137.)

이 ‘의도성’이라는 말을 ‘기능’ 혹은 ‘효과’라는 말로 대체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 above all, a translator needs to consider the function of allusions in their contexts. Identifying the function is an important step towards deciding what translation strategy will be appropriate for the allusion in question.” (Ritva Leppihalme, *Culture Bumps. An Empirical Approach to the Translation of Allusions*,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Ltd, 1997, p. 31).

32) 에코, 『번역한다는 것』, pp. 230-231.

33) 에코, 『번역한다는 것』, p. 231.

수용 맥락을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우리는 번역자의 해석과 번역본 독자의 문제와 마주하게 됨을 발견한다.

IV. 맺는 말

상호텍스트성의 번역에 대해 살펴 본 이 짧은 글에서 우리는 그저 복잡한 문제의 한 부분만을 다루었을 뿐이다. 상호텍스트성의 번역 가능성 역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문화 간 교류의 증가와 더불어 축적되고 발전되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이나, 번역이라는 행위 자체가 상호텍스트성의 특수한 한 형태로 기술될 수 있다는 점 등은 차후의 연구를 통해서라도 계속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 글을 통해 분명해진 내용을 추린다면, 그것은 상호텍스트성이 독자의 인식과 이해를 통해 발현되는 까닭에 독자의 문화적 경험과 독서 체험을 배제한 채 오직 주어진 텍스트만을 해석 대상으로 삼아 번역될 수는 없다는 점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번역과정에서 출발텍스트의 상호텍스트성을 “원형 그대로” 보존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출발 텍스트의 상호텍스트성을 감지하는 일부터, 그 의미를 해석하여, 가장 적합한 상호텍스트성을 재창조해내기까지의 과정 전체가 번역자들에게는 하나의 시련이자 도전이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상호텍스트성의 번역은 출발 텍스트의 독자이자 번역 텍스트의 새로운 저자인 번역자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작업의 중요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이자, 번역텍스트 수용의 사회 문화적 조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터전이기도 하다.

□ 참고문헌

- 움베르토 에코, 『푸코의 진자』, 이윤기 옮김, 열린책들, 1995.
_____, 『소설 속의 독자』, 김운찬 옮김, 열린책들, 1996.
_____, 「상호텍스트적 아이러니와 읽기의 층위들」, 『움베르토 에코의 문학 강의』, 열린책들, 2005.
_____, 『번역한다는 것』, 김운찬 옮김, 열린책들, 2010.
- Baker, Mona, *In Other Words: A Coursebook on Translation*, London, Routledge, 1992.
- Bush, Peter, “Intertextuality and the Translator as Story-teller”, *Palimpsestes 18. Traduire l'intertextualité*, Paris, Presses Sorbonne Nouvelle, 2006, pp. 213-229.
- Chartier, Delphine, “De la perception de l'hypotexte à sa traduction, une histoire de lectures...”, *Palimpsestes 18. Traduire l'intertextualité*. Presses Sorbonne Nouvelle, 2006, pp. 165-179.
- Eco, Umberto, *Foucault's Pendulum*, Translated by William Weaver,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89.
- Eco, Umberto, *Lector in Fabula*, traduit par Myriam Bouzaher, Paris, Le Livre de poche, 1987.
- Federic, Eleonora, “The translator's intertextual baggage”, *Forum for Modern Language Studies*, 43:2, 2007, pp. 147-160.
- Genette, Gérard, *Palimpsestes, La littérature au second degré*, Paris, Seuil, coll. “Poétique”, 1982.
- Hatim, Basil & Mason, Ian, *Discourse and the translator*, London & New York, Longman, 1990.

- Hutcheon, Linda, "Eco's echoes: ironizing the (Post) Modern", *Diacritics*, vol. 22, 1992, pp. 2-16.
- Iser, Wolfgang, *L'acte de lecture. Théorie de l'effet esthétique*, traduit par E. Sznycer, Bruxelles, Pierre Mardaga, 1976.
- Jenny, Lorent, "La stratégie de la forme", *Poétique*, n° 27, 1976, pp. 257-281.
- Leppihalme, Ritva, *Culture Bumps. An Empirical Approach to the Translation of Allusions*,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Ltd, 1997.
- Limat-Letellier, Nathalie, "Historique du concept d'intertextualité", dans N. Limat-Letellier et M. Miguet-Ollagnier (dir.), *L'Intertextualité*, Paris, Les Belles Lettres, 1998, pp. 17-64.
- Piégay-Gros, Nathalie, *Introduction à l'intertextualité*, Paris, Dunod, 1996.
- Riffaterre, Michael, "L'intertexte inconnu", *Littérature*, n° 41, février 1981, pp. 4-7.
- _____, "La trace de l'intertexte", *La Pensée*, n° 215, octobre 1980, pp. 4-18.
- Roux-Faucard, Geneviève, "Intertextualité et traduction", *Meta*, 51-1, 2006, p. 98-118.
- _____, "L'intertextualité est-elle une limite du traduisible?", *Forum*, 2-2, 2004, p. 41-55.
- SEON, Yeong-A, *La traduction du stéréotype dans le texte littéraire : domaine français-coréen*, thèse soutenue à l'Esit-Paris 3, 2006.
- Venuti, Lawrence, "Traduction, intertextualité, interprétation",

Palimpsestes 18. *Traduire l'intertextualité*, Paris, Presses Sorbonne Nouvelle, 2006, pp. 18-41.

« Résumé »

L'intertextualité en traduction

SEON Yeong-a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Le présent article est destiné à réfléchir sur le phénomène de l'intertextualité en traduction, qui constitue un problème spécifique. Il est de l'ordre de l'impossible de conserver l'intertextualité telle quelle dans une traduction, le texte cité dans le texte de départ n'étant pas toujours connu de la culture de réception. Ainsi dans la traduction sont souvent perdus les échos intertextuels.

Il revient au traducteur de s'efforcer de préserver les jeux intertextuels, en se posant les questions suivantes : le lecteur du texte traduit pourra-t-il retrouver les traces de l'ancienne intertextualité? L'intervention directe du traducteur - la note du traducteur par exemple - ne risque-t-elle pas de modifier l'effet visé par le texte original? Ne serait-il pas préférable d'avoir recours à une récréation ou à d'autres procédés dans certains cas?

Afin d'illustrer cet enjeu de l'intertextualité en traduction, nous sommes appuyés sur un exemple choisi dans *Le pendule de Foucault*, qui constitue un défi pour les traducteurs en raison du haut niveau d'intertextualité. Par cet exemple, nous avons voulu

montrer que le lecteur est le facteur le plus déterminant en ce qui concerne la traduction de l'intertextualité et que celle-ci exige du traducteur qu'il assume le rôle de l'interprète et du créateur.

주제어 : 상호텍스트성, 번역, 독서, 해석, 주관성

Mots-clés : intertextualité, traduction, lecture, interprétation, subjectivité

논문 투고일 : 2015년 10월 31일

심사 완료일 : 2015년 12월 8일

게재 확정일 : 2015년 12월 8일

